



김옥진 작 'Pool'

# 전남 작가들, 서울 화단 진출 응원합니다

지난해 전남문화재단과 서울옥션이 진행한 인터넷 경매 '제로베이스 in 전남'에 참여했던 정선영 작가의 '공존'은 58번의 경합을 거쳐 650만원에 낙찰됐으며 한임수 작가는 15점을 판매했다. 두 작가를 비롯해 박채성·공기평·위성용·추순정·최인경 등 총 7명이 참여해 66점을 선보인 경매의 총 낙찰가는 8800만원이었다.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작가들의 서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올해도 지역 작가들의 중앙 무대 진출을 응원하고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술 활성화 예산도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눈에 띄는 건 수도권 미술관 연계 기획전시다. 지역작가들에게 중앙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미술관 전문 큐레이터와 협력, 현대미술과 지역 이슈를 주제로 작가들을 선정 후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탈미술관 신보솔 큐레이터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올해 작가를 공모, 전남 지역에서 전시를 가진 후 내년에는 수도권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게 된다.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한 온라인 기부 경매도 새롭게 진행한다. 작가들의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역 청년예술가 육성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기획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남도사이버갤러리 온라인 경매를 활용해 열린다. 참여작가는 지난 2년간 '제로베이스 in 전남'에서 좋은 성과를 낸 고차분·정선영·한임수 작가로 모두 25점이 나올 예정이다.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 기획은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로 경매 참가자를 공모를 통해 선

정받은 후 서울옥션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참여 작가를 선정한다.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경매에서는 주최측이 작품 소개와 참여작가들 작품 세계에 대한 인터뷰 등을 온라인 전시장에 올려 컬렉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작가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작가 8명의 작품 80점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7475만원이다.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가는 고차분 작가로 '다른 선택'이 42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고 15점이 완판됐다. 고 작가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전남, 강원에서 진행된 '제로베이스' 참가자 중 대중의 관심을 받은 작가들과 서울옥션이 선정한 작가가 참여한 '제로베이스 스펙트럼'에서도 'Good News'가 88회 경합 끝에 1610만원에 낙찰되는 등 7점을 완판, 모두 7785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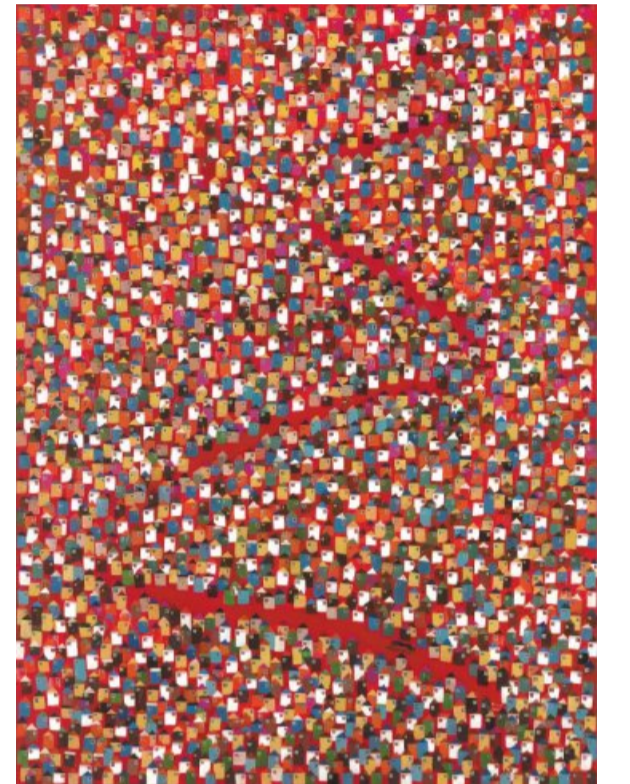
또 다른 참가자였던 한임수 작가는 7작품이 낙찰, 판매 금액은 3040만원을 기록했으며 정선영 작가는 3개 작품이 720만원에 판매됐다. 김옥진 작가의 경우도 5개 작품이 84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018년부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 지역 아트 페어 참여 작가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 재단이 직접 부스를 운영한 '서울아트쇼'에는 7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고차분(4점), 김옥진(5점) 작가가 작품을 판매해, 3500만원의 판매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작가 미술작품 임대 및 기획전시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전남개발공사에 4명의 작가 작품을 임대했으며 무안군 코로나 19백신예방접종센터에 미술작품을 전시했다. 또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7명

작가, 25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작품 렌트사업 공모선정작 홍보 전시도 진행했으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 기념 수목소장품전도 추진했다. 임대 수익금은 작가에게 전액 지급됐다. 올해는 공공 기관 뿐 아니라 병원, 군부대, 복지 시설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그밖에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술 작품 컬렉션과 관련, '현대미술과 컬렉션'을 주제로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차분 작 'Memento Mori'

전남문화재단, 1억8000만원 예산 확보 사업 추진  
고차분·정선영·한임수 참여 온라인 기부 경매 첫선  
'제로베이스 in 전남' 서울아트페어 참여작가 지원

## 존재 너머의 본질 '남겨진 자들의 시간'

이철규 세번째 개인전, 11~20일 예술공간 집



'Don't worry'

서양화가 이철규 작가 개인전이 11일부터 20일까지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이은 개인전이다.

'남겨진 자들의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람들의 모습에 반추된 사유의 심상들을 시각화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사물의 형태를 변형하고 재구성한 독특한 화면과 강렬한 색상이다. 그의 작품들은 의자, 옷, 꽃, 인간, 심장 등의 구체적 사물이 토대가 되지만 작가는 외형의 모습에 천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본질을 바라본다. 작가의 작품들은 보색대비의 색채와 해체된 형상이 어우러져 새로운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의자와 인물을 소재로 '남겨진 자들의 시간'에서는 추억과 선택, 좌절과 희망 등 인간의 험거운 삶을 '의자'라는 작은 공간에 투영,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심장'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작품, 소녀들의 찬란한 정춘을 위해 헌사하는 마음을 담은 '소녀에게 바칩' 등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개인전 2회와 남부현대미술제 및 서울, 광주 신세계 유망작가 초대전, 담빛예술창고 신관 개관전 'ART\_Hybrid' 전 등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관 10년

12일 '2022 무등풍류 댄' 사진전·한복체험·공연 등 송광무 '세화' 선착순 증정



송광무 탕화장의 임인년 세화

지난 2012년 개관한 전통문화관은 웅성김은 문화예술의 맥을 이어왔다. 그동안 예술인과 전통문화를 잇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문화계 전문 교육과 아울러 시민을 위한 상설공연도 진행해왔다.

전통문화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웅복합 프로그램 '2022 무등풍류 댄'을 펼친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관 10년 시민 동락(同樂)'을 주제로 사진 전시, 탕화장 세화 시연, 한복체험,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을 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민이 촬영한 전통문화관 10년 사진 전시. 그동안 온라인 SNS에 소개된 사진을 매개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조성숙 작가의 '달간(月)한 공존', 류종원 작가의 '자연속에 스며들다', 장건우 작가의 '소원 들어주는 무등산 호랑이 할매' 등 작품들을 18일까지 전시한다.

행사 당일(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한복을 입고 전시장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증을 받으면 선착순 50가족에게 쌀 2kg을 나눠준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탕화장 송광무가 그린 임인년 세화도 만날 수 있다. 선착순 20명에게 작품을 증정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 가능하다. 너털마당에서는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진행으로 민속놀이 체험이 펼쳐진다.

축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판소리과 남도민요, 중견 실내악팀 '전통국악양상 놀음판'의 제석거리, 거문고와 춤의 향연 무대 외에도 창작국악팀 '헬로가야금'의 운하·바다소리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김산옥 국악인과 이윤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 진행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21 남도문화유산 향유기(紀)'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기부금 전달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총 16개 기관 450명에게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로로 지난해 문화재청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판소리 고법(鼓法)' 출판물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기록화사업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전승을 위해 기획됐으며 발간물에는 악보와 채록 등 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QR 코드가 부착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11일 한국학 클래스... 고영란 교수 초청



'이민'이라는 용어에 주목해 재일 여성의 글쓰기를 조명하는 해외 한국학 클래스가 열린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 지역어문학 연구단은 11일 오후 2시 제4회 한국학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클래스 강사는 일본 니혼대학교 고영란(사진) 교수.

'지역어문학의 공공성과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고 교수는 일본 사회 및 일본 현대 문학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민'이라는 용어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 출신 소설가의 부상을 살펴보고, 재일 여성의 글쓰기, 출판사 문학상, 유학생 문학상 등을 일본의 이민 정책과 결합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고 교수는 전남대 일어일문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경희대학교와 일본 니혼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근현대문학 연구자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 '전후라는 이데올로기' (2013)가 한국에 번역·출간돼 있다.

참여는 이메일(korean-bk4@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누리카드 연 10만원 지원 11월까지 충전, 연말까지 사용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시스템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 부터 도입된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시스템은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신청 절차 없이도 카드에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인당 연간 10만원)이 충전된다. 올해 지원금 자동재충전은 완료됐으며 재충전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주민센터,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발급자(자동재충전 제외대상자 포함)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1544-3412)를 통해서 발급 및 충전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가맹점 위치, 잔액조회 등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국악양상 놀음판의 공연 장면